

## “우간다 의과대학서 길러낸 의사가 2000명이 넘습니다”

글 유인종 편집부



진료 중인 유덕종 교수. 왼쪽어깨의 태극문양이 새겨진 KOICA 휘장이 인상적이다.

※ 유덕종 : 1959년 경북 칠곡군에서 3남1녀의 차남이자 셋째로 출생. 청구고 · 경북대 의대 거쳐 경북대 의대 대학원 졸업. 육군 대위(군의원) 전역 뒤 경북 안동병원 내과 전문의. 1992~2014 KOICA 정부파견의사 · 중장기자문단으로 우간다 근무. 2016년 3월부터 KOICA 글로벌닥터로 에티오피아 근무 예정. 현재 우간다 마케레레 의대 명예교수. 글로벌 코리아상,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국무총리상, 경북대 동문상, 아산상 의료봉사상 등 수상. 아내(이혜숙 · 57)와의 사이에 1남 2녀.

1992년부터 우간다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덕중(56) 마케레레 의대 명예교수는 자녀들과 대화가 잦은 편이다.

한 살 위인 아내(이혜숙)와 결혼해 1남2녀를 두었는데, 세 명 모두 우간다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인접한 케냐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친 뒤 국내 대학에 진학했다. 장녀(주은·26)는 연세대 생명공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재학 중이고, 차녀(주경·24)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KOICA(한국국제협력단) 청년인턴으로 탄자니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막내아들(사무엘·23)은 연세대 국제학과 3학년이다.

자녀들이 장성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먹해지기 십상인데, 유 교수 가족은 아프리카라는 생명력 넘치는 땅에서 20여 년간 생활한 덕인지 솔직하면서도 개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너는 체력이 좋으니까 해병대를 가면 어떻겠느냐?”는 유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인 아들은 해병 중에서도 훈련 강도가 세기로 유명한 수색대를 자원해 복무했을 정도다.

지난 10월 26일 KOICA ‘글로벌 닥터’에 지원하기 위해 잠시 귀국한 유 교수는 아들과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가 ‘금수저’ 논란을 접했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은 물론 취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를 읽은 유 교수는 아들에게 한 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너는 돈을 중심에 두는 가치관을 갖지 마라. 요즘 세대에 영향 받지 말고, 세상에 도움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 “돈도 집도 없지만 행복하다”

유 교수는 한국에 들르면 서울 연희동의 자그마한 빌라에 머문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의 집으로 전세(1억5천만 원)다. 유 교수는 20년 넘게 살고 있는 우간다에도 집이 없다. 지금까지 일곱 차례 이사했는데, 모두 월세였다. 승용차는 중고로 구입한 현대 소나타를 13년 동안 타다가 10년 된 도요타 중고 RAV4를 산부인과 의사인 친구가 사 주어 10년째 몰고 있다.

저축이 많은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유 교수가 월급을 받은 곳은 KOICA인데, 보통의 직장인 급여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아프리카 파견 초기인 1990년대 초반에는 2,000달러선, 2014년 7월의 마지막 월급은 4,500달러였다). 여기에서 얼마간 떼어 아직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비조로 모아두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행복하다고 말한다.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가 차이를 만들지 않을까요? 제 의대 동기생들 중 대학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정교수이고, 대학병



KOICA ‘글로벌 닥터’에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말 잠시 귀국한 유덕중 교수. 오는 3월부터 글로벌 닥터로 에티오피아에서 근무하기로 결정됐다. ©전호성

원장을 맡은 동창도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자격지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옷과 음식이 떨어져본 적이 없는데,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 높다는 유 교수의 ‘행복지수’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를 여윈 유 교수는 우울한 성장기를 보냈다. 어머니에게 못 해드린 효를 아버지에게는 전하고 싶어서 의대에 진학했다. 대학에 다니면서 성 프란치스코 전기 등을 접하고 어려운 이를 도우며 살기로 결심한 그는 그때부터 아프리카를 가슴속에 품었다.

모교인 경북대병원에서 수련의를 하면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학교에 남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과정은 그에게 무의미했다. 내과 레지던트를 하던 1986년 결혼식을 올렸다. 영남대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한 아내는 당시 왜관의 순심여중·고가 정교사였다. 아내는 결혼 이듬해 경북대 간호학과에 입학해 졸업하는데, 이는 아프리카에서의 진료를 꿈꾸는 남편을 돕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강원도 원주의 군부대와 대구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한 그에게 은사 중 한 명이 모교 강의를 제의했다. 한동





큰딸의 케냐 소재 국제학교(RVA, Rift Valley Academy) 졸업식에서. 왼쪽부터 아내, 아들, 큰딸. 유 교수, 둘째딸. 머리 손질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부인이 '전속 이발사' 역할을 한다(위부터).

안 고민하던 그는 아프리카의 꿈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 잠시 경북 안동병원 내과에서 근무하던 그에게 마침내 기회가 왔다. KOICA에서 아프리카에서 일할 정부과견의사(정과의)를 모집한 것이다.

국내에서의 안락한 지위를 버리고 아프리카를 선택하는 의사는 많지 않았다. 당시 제1기 KOICA 정과의로는 3명만이 지원해 모두 선발되었다. 그는 아프리카의 영어권 국가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를 골랐는데 그곳이 우간다였다(당시 인구 1,700만. 지금은 3,500만 명). 다른 정과의 2명은 스와질랜드와 나미비아에 파견되었으나, 한 명은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자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1년을 못 채우고 중도 귀국했다. 2007년까지 유지된 정과의 중에서 이처럼 오랜 기간 아프리카에서 활동한 의사는 아무도 없다.

우간다에 처음 왔을 때 그의 나이가 만 32세였다. 그로부터 50대 초반까지 우간다에서 생활했으니 인생의 황금기를 우간다에서 보냈다. 젊음과 꿈이 함께한 우간다를 그가 '진정한 고향'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잠시 관광한다면 모를까, 아프리카는 문명을 맞본 사람들이

오래 머물기 어려운 곳이다. 활동장소가 우간다로 결정된 뒤 그는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다. 참고서적이 많지 않았지만, '수도를 벗어나면 아프리카지만, 아프리카의 수도는 그래도 유럽 분위기'라는 글귀에서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1992년 6월 20일 그가 대면한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Kampala)는 그냥 아프리카였다. 캄팔라에서의 첫날밤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 우간다, 젊음 바친 영원한 고향

“한밤중에 비가 왔어요. 처음 경험하는 스콜이었죠. 천둥번개가 치면서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담요를 머리까지 뒤집어썼지만 너무 추웠습니다. 열대지방에서 추위 때문에 제대로 잘 수 없었다면 믿지 못할 겁니다. 1시간쯤 지나 폭우가 그치자 멀리서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사격장에서나 들었던 총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들리던 개 짖는 소리…. 우간다 개들은 늑대처럼 울부짖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추위와 총소리, 개소리 때문에 거의 잘 수 없었습니다.”

그의 근무지는 1,500병상인 물라고(Mulago)병원이었는데, 병상 가동률은 100%가 넘었다. 침대뿐만 아니라 병원 바닥에도 환자들이 누워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가 팽창하던 시절에 영국은 지금의 우간다와 케냐, 탄자니아 등이 자리한 아프리카 동부를 지배했다. 우간다에서 차량들이 좌측통행을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시기의 교육 중심지가 캄팔라였고, 캄팔라에 위치한 마케레레(Makerere)대학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부아프리카의 최고 명문대학으로 꼽힌다. 물라고병원은 마케레레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다.

최고 대학의 최고 부속병원이지만 환경은 몹시 열악했다. 20세밖에 안 된 환자가 약이 없어서 당뇨혼수로 사망에 이르렀고, 인구 60%가 의사 한 번 만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현실은 그 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 죽음이 항상 지척에 있었다.

물라고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입원환자가 4층에서 뛰어내리는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다.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환자의 비관 자살이었다. 그가 진료한 환자 대부분이 에이즈로 인한 기회감염일 정도로 우간다에는 에이즈가 흔했다. 개방적인 성문화 탓에 감염 원인의 95%가 이성간의 성 접촉이었다. 가끔 말라리아 환자를 치료했고, 당뇨나 심장병 환자는 아주 드물었다.

어느 날 회진을 도는데 비쩍 마른 결핵환자가 그의 손을 잡고 “선생님, 배가 고파요” 호소했다. 인턴에게 돈을 주어 빵과 우유



병실에서의 회진 모습. 의대생들이 둘러보는 가운데 인턴이 환자상태를 설명 중이다. 병원 복도에 누워있는 환자들(왼쪽부터).

를 사서 전달하게 했지만, 그 가냘픈 손을 잊을 수 없었다. 그를 아프리카에 계속 머물도록 한 것은 그날의 여윈 손이었는지도 모른다.

## 아프리카 사랑하는 행복한 의사

우간다에서 그의 활동은 몰라고병원 진료와 마케레레의대 강의로 나뉜다. 보통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면서 화요일 오전에는 외래환자를 보았다. 오전과 오후 회진 등에서 진료한 입원환자는 하루 40명선이었다.

나머지 시간에는 의대에서 강의를 했다. 의대의 한 학년이 100명가량 되고, 23년 동안 강의를 했으니까 그가 양성한 우간다 의사가 2천 명쯤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간다에서 40세 미만의 젊은 의사는 대부분 유덕종 교수 제자’라는 지적은 괜한 말이 아닌 것이다. 우간다 보건부의 전임 장관과 현재 차관이 그의 제자여서 현지 의료기반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마케레레의대에서 올해의 강의상(2013년)을 받았고, 몰라고병원 내과 최우수 의사(2000년)로 선정되기도 했다.

위기도 있었다. 1996년 에이즈 환자의 조직을 검사하다가 주사바늘에 왼손 검지를 찔렸다. 이런 경우 감염 확률이 0.3%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지만 ‘손가락을 잘라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다. 다행히 별 탈 없이 지나갔다. 그 이듬해에는 결핵환자의 기관지경 검사를 하다가 폐결핵에 감염돼 체중이 51kg까지 빠졌다. 8개월이 걸려 70kg을 회복한 뒤 지금도 그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 허리 디스크에 걸렸을 때는 우간다나 케냐에서 치료할 수 없어 병가를 내고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았다.

가장 큰 고비는 초등학교 2학년인 큰딸이 뇌수막염에 걸렸을 때였다. 한국이라면 아무 병도 아니었을 텐데 우간다에서는 손쓸 방법이 없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상태가 도저히 소생 불가능해 보였다. 그때처럼 의사로서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큰딸이 3개월 만에 살아난 것은 기적 말고는 달리 부를 말이 없었다.

큰딸의 병을 겪으며 캄팔라에 쓸 만한 병원을 세울 구상을 했다. 기업인과 선교단체 등의 후원을 받아 2002년 베테스다클리닉을 개원하도록 힘을 보탰다. 캄팔라 고아원 어린이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베테스다클리닉에는 현재한국인 의사 7명과 약사 1명이 일하고 있다.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도 아프리카를 떠나지 못한 것은 의사로서의 소명감 때문이었다.

“가끔 저를 ‘우간다의 슈바이처’라고 하는데,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서부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우간다 사람들은 슈바이처를 몰라요(웃음). 어쨌건 과분한 칭찬이고요, 저는 그저 제가 일해야 할 곳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할 뿐입니다. 오는 3월부터는 KOICA 글로벌 닥터로 에티오피아에서 일하기로 결정됐어요. 잠시 우간다를 떠나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2009년에 취득한 우간다 영주권이 있어요. 은퇴해도 한국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인 우간다에서 살 겁니다.”

2015년 아산상 의료봉사상 수상자로 선정해준 아산재단에 감사인사를 전한 그는 상금 1억 원은 우간다의 병원과 음악학교에 기부하기로 가족들과 의견을 모았으며 환하게 웃었다. 🌟